

‘천원 아침밥 확대’ 정부 발표(5.8)에 대한 입장

- 오늘 농식품부는 ‘천원 아침밥’ 2차 추가 모집결과 145개 대학교를 최종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. 기존 41개교에 신규 104개교가 추가 신청하였고 참여 인원 역시 기존 69만명에서 3.5배 이상 커진 234만명의 식수인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.
- 우리당은 모든 대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던 만큼 정부의 확대 발표에 대해 환영하며 다음과 같은 추가 제안을 드리고자 한다.
- 첫째, 전국 대학(352개교) 대비 신청비중은 41.2% 수준으로 여전히 신청하지 못하는 학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모든 학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단가와 지원기간 등 관련 예산 지원을 더 늘려야 한다.
- 둘째, 전국 257개 대학(전문대 포함)이 지원받고 있는 대학혁신지원사업비(대학별 연평균 60~70억원) 등 일반재정지원사업을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교육부는 이를 적극 안내하고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대학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.
- 셋째, 코로나19 시기 학교식당이 폐쇄되거나 조리인력 충원의 어려움을 겪는 등 대학의 사정을 고려하여 인근 지역식당 쿠폰이나 도시락 제공(조선대학교 사례)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여야 한다.
- 넷째, 대학 참여 확대 과정에서 민간위탁급식 구조의 한계로 단체급식 질 저하, 식수인원의 지나친 제한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생활협동조합 및 대학 직영 권고, 식자재 공동구매 등 급식시스템의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.

-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정치권과 국민 모두가 바라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모든 대학생에게 제공 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과 제도 개선을 위해 언제든지 협의해 나갈 용의가 있으며, 우리의 제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다. 아울러 이후 비대학생 청년과 노동자 등에게도 따뜻한 아침한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확대를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. 이를 통해 아침이 있는 삶이 보장되고, 한 끼 밥값을 걱정하지 않도록 국민의 기본적 삶의 질이 보장되는 기본서비스 제도를 더욱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.

2023. 5. 8.(월)



정책위원회 의장 김 민 석